

0806(토) 예레미야 1-3장 파괴하고, 다시 세우라!

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 받았습니다(1:2).

그는 남 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.

당시는 바벨론이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기 이전이었고,
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등의 영적 각성이 있었으므로
유다 사회는 예레미야의 말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.
오히려 거짓예언자들의 <평강> 예언이 대세였습니다.

(4:9-10, 6:13-14, 14:13-14, 27-28장)

남 왕국은 <다윗 언약>과 <성전>을 맹신했습니다.
이 둘은 영적 각성과 회개에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.
<하나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아! >(5:12-13, 삼하7:13, 왕상6:12-13)
하나님은 자칭 <하나님 백성>인 자들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(2-3장).

<우상숭배라뇨? > 반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(2:23,35),
그들의 신앙은 형식과 외양을 갖췄을 뿐이었습니다(3:4-5,19-22, 6:20).
실상,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혀되고 무익한 것(2:5,8,11,13, 5:19),
열강과 이방 신들을 찾아다니며 <행음>하였습니다(2:18, 24-25, 36, 3:1,6-10).

“오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
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
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(1:10)”

하나님은 <철저히 파괴하고 다시 세우라! > 명령하십니다.
매너리즘에 빠진 삶과 신앙, 종교적 치장과 겉치레, 영적 기복,
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갈아엎고,
처음부터 새롭게 건설하고 심으라고 명령하십니다.
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(1장).

나는 참 <하나님 백성>입니까?

- ① 자칭 <하나님 백성>입니까, 참 <하나님 백성>입니까?
- ② 익숙하고 학습된 종교생활,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?